



담당부서 :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

치수안전과장	최연호	2133-3860
치수총괄팀장	김지환	2133-3862
치수관리팀장	김병오	2133-3869
담 당 자	조현범	2133-3863
	박철호	2133-3897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오세훈 시장,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공사장 및 빗물펌프장 현장점검

- 20일(화) 오후 도림천 일대 저류조 건설 현장 및 빗물펌프장 등 3곳 현장 찾아
-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: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출 저감 대책 관련 등 살펴
- 신림 빗물펌프장 : 펌프기동 및 제진기 운영상태 점검, 근무자 애로사항 청취
- 보라매공원 : 옥만호 활용해 집중호우 시 빗물 저류하는 방안 청취 및 실행계획 점검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(화) 오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.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림천 일대 저류조 건설 현장과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찾아 공정과 수방대비 태세를 점검한다.
-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아 오세훈 시장이 대형 공사장과 빗물 펌프장을 찾아,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류해 저지대 침수피해를 줄 이고자 검토 중인 노면수 유출 저감대책 대상 현장을 직접 꼼꼼히 살펴 보기 위해 마련됐다.

- 서울시는 저지대 항구적 피해예방 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이 완공되는 2027년 이전에 집중 호우시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하천 및 저지대로 유입되는 노면수를 줄이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.
- (예시) 굴착 및 지하공간 공사가 완료된 대형 공사장을 임시 저류조로 활용, 서울시 관리 공원내 저수지, 연못 등의 수위 조절을 통한 빗물 저류 방안 등

□ **이날 오세훈 시장은 첫 번째 점검지역으로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건설현장을 찾아 임시저류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.**

-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건설현장은 관악IC 인근에 최대 3만 5천톤 까지 저류할 수 있는 대규모 저류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다. 폭우시 도림천의 물을 저류조로 유입시켜 빠르게 수위를 낮춤으로써 하천범람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시는 오는 2025년 완료 예정인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를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저감시키는 시설로 임시 활용할 계획이다.**

- 서울시는 굴토가 완료된 지하공간에 청룡산에서 내려오는 노면수를 6만 톤까지 저류시킬 계획이다.

<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 현황>

※ 사업개요	
- 위치 :	관악구 신림동 140-2번지 일원(관악IC 인근)
- 규모 :	빗물저류조 $V=35,000m^3$ (지하2층) *지상·지하1층 차고지
- 공사기간 :	'18.10. ~ '25.12. (공정률 48%)
- 총사업비 :	974억원(저류조 293억원 / 차고지 681억원)



- 이어, 오 시장은 도림천 변에 있는 신림 빗물펌프장으로 이동한다. 펌프가동 및 제진기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펌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, 돌발강우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당부할 예정이다.
 - 신림 빗물펌프장은 도림천 수위가 상승해 주택가 빗물이 하천으로 자연 배수되지 못할 때 펌프를 가동, 강제로 배수 처리하는 시설이다. 도림천의 지역적·구조적 특성상 적은 비에도 빠르게 수위가 상승하여 여름철에는 항상 우선적으로 가동을 준비해야 하는 펌프장 중 하나이다.
- 또한, 보라매 공원을 찾은 오 시장은 이번 여름철 공원 내 호수(옥만호)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행계획을 점검한다.
 - 호수의 물을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미리 빼서 수위를 낮추고, 강우시 빗물을 저류토록 하는 계획으로, 옥만호의 최대 저류 계획량은 5,320톤이다.
- 오세훈 시장은 “이번에 점검한 도림천 유역 외에도 침수취약지역, 하천, 산지 등 피해 우려지역 건설현장 및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, 호수 등을 활용한 빗물유출

저감계획도 구체화 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이어, “수해 피해 예방은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개인 하수구 정비 및 인근 빗물받이 청소 신고 등 시민분들 개개인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,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” 라고 말했다.